



떠나가는 배

나 두 야 간다 / 나의 이 젊은 나이를 / 눈물로야 보낼거나 / 나 두 야 가련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용아생가.

박용철 시인 탄생 110주년 '용아 문학제'

20~21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용아 생가 일원



"...하늘가에 새 기쁨을 그리어 보라/ 남겨 둔 무엇일래 못 잊히우라/ 모진 바람이 마음껏 불어쳐라/ 흩어진 꽃잎 쉬엄 어디 찾는다나...//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아득한 꿈엔 달려가는 길이언만/ 서로의 굳은 뜻을 남게 앓긴/ 옛사람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여라." (박용철 '고향' 중)

용아(龍兒) 박용철(1904~1938) 시인 탄생 110주년을 맞아 문학과 삶을 기리는 용아 문학제가 열린다.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용아 생가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문학제는 한국 시단에 큰 족적을 남긴 박용철 시인의 시 정신을 되새기고 그의 생애를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문학제는 (사)용아기념사업회(가칭·회장 문병란)가 꾸려져, 향후 문학촌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광산구 소촌동에서 출생한 용아는 현대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인으로 꼽힌다. 그는 1930년 김영랑(1903~1950)과 '시문학'을 창간 정지용, 신석정 등과 함께 예술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떠나가는 배', '비 내리는 밤', '씨늘한 이마' 등 대표작을 남겼고 '시적변용에 대해서'

전국백일장·포엠송 콩쿠르 북콘서트·대동한마당 등 다채 문화나눔 체험에 시문학과 홍보 부스 운영도

와 같은 시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산문화원과 (사)용아 박용철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문학제는 '나두야 용아'를 주제로 치러진다. 그동안 열렸던 용아 전국백일장 대회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접목, 시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제 '나두야 용아'는 시 '나두야 간다'에서 차용한 것으로, 박용철 시인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문학제에 참여하



2014 용아문학제 포스터

는 시민 모두 시인이 된다는 의미를 아우른다.

첫날 20일에는 정광중·고등학교에서 '용아 박용철 전국백일장(글짓기·그리기)'이 열리고, 용아 생가에서는 '용아 포엠송 콩쿠르 자유공연', '북콘서트', '대동한마당(축하공연 및 먹거리장터)'이 개최된다.

21일에는 용아생가에서 '용아 퀴즈왕'과 '용아 포엠송 콩쿠르 결선 및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문학제 기간에 치러지는 다양한 부대행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위주에 초점을 맞췄다. 시인이 탄생한 출생지를 직접 둘러보는 용아생가 투어, 순수문학의 기수였던 시문학과를 알리는 홍보 부스 운영, 사진 촬영으로 추억을 되새기는 용아 포토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이밖에 용아 생가 주변 골목과 주차장 등에서는 캐리커처, 캘리그라피, 국극 스탬프 등 문화나눔 체험도 펼쳐진다. 용아 시를 손글씨로 쓴 캘리그라피전, 북아트 전 등도 예정돼 있어 어느 해보다 풍성한 행사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현선 광산문화원장은 "향후 문학촌을 건립해 용아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고 생가 일대를 문학의 거리로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박용철의 문학 세계를 구현하고 시정신을 기릴 수 있는 용아 문학상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문화원과 용아기념사업회는 지난 6월부터 박용철 생가에서 인문학콘서트 '숨결'을 진행해오고 있다. 11월까지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에 열리는 인문학콘서트는 그동안 송수권, 김준태, 고재중 시인을 비롯한 남도를 대표하는 문인들이 강사로 나서 남도의 문학과 정신을 주제로 시민들과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62-941-3377.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박구용 교수와 영화읽기

광주시네마테크와 함께 하는 영화 읽기 18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추천영화 '금지된 사랑'

광주시네마테크와 함께 하는 영화 읽기 9월 행사가 오는 18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5월부터 매월 1회씩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문화계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을 초청, 자신이 추천하는 영화를 함께 보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다.

이번에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사진)다. 그가 추천한 영화는 클로드 소테 감독의 '금지된 사랑'(1991년 작).

오랜 친구인 두 남자 사이에 한 여자가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1992년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 수상작이다.

청소년 시절부터 친구인 스테판과 막심은 현재 약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젊고 재능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까미유는 막심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스테판은 그들의 관계를 못마땅해 한다. 다니엘 오테이유와 엠마누엘 베아르가 주연을 맡았다. 티켓 가격 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15회 무등청소년문화예술제 참가자 모집

한국청소년인권센터는 10월 18~19일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5회 무등청소년문화예술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18일에는 청소년댄스경연대회, 10월19일에는 음악(관현악)경연대회가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전국 청소년으로, 댄스 부문은 방송댄스, 힙합댄스, 창작댄스, 벨리댄스 등이며, 음악 부문은 합주와 독주로 구

성된다.

부문별 대상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상과 장학금 30만원이 시상되며,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에게는 각각 광주시장상과 광주시교육감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10월11일 오후 6시까지 한국청소년인권센터와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으로 하면된다.

문의 062-224-5525, 062-268-232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lesson

하루 'One day'전 26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오는 26일까지 작가 하루를 초대해 전시회를 연다.

그동안 '맛있는 산수' 연작을 선보여온 작가는 이번에는 평면 작업을 과감하게 벗어던졌다. 전시장을 설치 작품들로 채워 하나의 미로 형태로 만들어냈다.

작가는 'One day'를 주제로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예술의 기능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 놓는다. 150여점의 이미지들이 '게임의 법칙', '욕망', '언어' 등 8개의 설치작품이 있는 놀이 있는 방으로 관람객을 안내한다. 관람객들은 마음에 드는 이

미지를 따라 각각의 방으로 향해 설치 작품의 에피소드를 마주한다. 동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작가는 "전시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의 축소판"이라며 "미로 속에 다양한 길이 존재하듯이 각자의 길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루는 2014년 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했으며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575-8883.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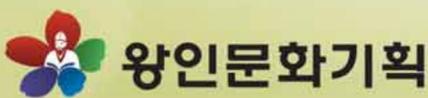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